

영국이 F-35B 라이트닝 전투기에 스피어(SPEAR)-3 소형 순항미사일을 장착할 예정이다. 영국 국방부는 최근 스피어-3 미사일 제작사인 MBDA와 이런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. 스피어-3 미사일은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이다. 특히 여러 발이 함께 비행하는 네트워크 기능도 갖추고 있다. 미국은 무인지상차량(UGV)을 구매하고 있다. 특히 미국이 구매하고 있는 UGV는 다양한 무장과 분석·자료수집용 장비 등을 갖춰 폭발물 처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 네덜란드 육군은 지난해 도입한 CV-90 장갑차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. CV-90 장갑차에는 스파이크 미사일을 장착해 강력한 화력으로 적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고 능동방호체계도 처음으로 도입할 방침이다.

임채무 기자

영국 F-35B 전투기에 스피어-3 순항미사일 장착할 듯

전술타격 무기 낙점...계약 규모 5억5000만 파운드

영국이 F-35B 라이트닝 전투기의 주요 전술타격 무기로 스피어(SPEAR)-3 소형 순항미사일을 선택했다. 영국 국방부는 최근 원격 공대지 무기체계 생산을 위해 MBDA와 7개년 시연·제작 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주력 전투기로 사용할 F-35B 전투기에 스피어-3 미사일을 장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. 스피어-3 미사일의 계약 규모는 5억 5000만 파운드(약 8420억 원)다.

영국 공군은 앞으로 1년6개월 안에 유로 파이터의 타이푼 전투기를 이용해 스피어-3 미사일의 유도발사 시험을 할 예정이다. 제작사인 MBDA는 2025년쯤 스피어-3 미사일이 작전 운용 준비를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스피어-3 미사일은 프랫 앤드 휘트니(Pratt&Whitney)의 TJ-130 터보제트 엔진을 이용, 140km 이상 원거리에서 교전이 가능하다. 또 고도 30~40km에서 발사되면 최대 마하9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다.

MBDA는 이 고도에서 공기저항이 작아 사거리와 속도가 극대화된다고 설명했다.

스피어-3 미사일은 발사 직후 순항용 날개가 펼쳐져 터보제트 엔진의 추력으로 비행하도록 설계됐다. 중량은 100kg, 직경은 180mm이며 길이는 1.8m이다. 등 부분에는 펼침식 날개가 설치돼 있고, 양 옆으로 흡입구를 갖추고 있다. 3개의 접이식 꼬리도 특징이다. 또 통합 무선주파수(RF) 영상센서와 반능동식 레이저 탐색기를 장착해 표적 지역의 영상을 관측할 수도 있다.

스피어-3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발의 미사일이 연계된 비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. 각 미사일은 탑재된 센서들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비행하지만, 인공지능(AI) 기술을 활용해 여러 발이 함께 비행하는 네트워크 기능도 탑재됐다. 각 미사일은 복합적인 정보를 참고해 주야간에 전전후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. MBDA는 “네트워크 집 단전을 구사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MBDA



영국 공군이 F-35B 전투기에 스피어-3 순항미사일을 장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. 사진은 F-35B에서 발사된 스피어-3 미사일의 모습을 상상해 그린 개념도. 출처=janes.com

가 추구하는 미래 비전의 핵심”이라면서 “스피어-3 미사일은 이런 기술을 한발 앞서 적용한 최첨단 무기”라고 설명했다. 이 밖에도 능동방호체계를 처음으로 도입할 방침이다.

미국 센토 무인지상차량(UGV) 추가 구매

올 1분기 250대 납품받아 각 군 배치

플리어(FLIR)시스템즈는 최근 미 국방부가 센토(Centaur) 무인지상차량(UGV)을 구매하기 위해 3200만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밝혔다.

계약에 따르면 FLIR시스템즈는 올 1분기에 센토 UGV 250대 이상을 납품할 예정이다. 이 UGV는 각 군에 배치될 예정이다.

미 국방부는 그동안 꾸준히 센토 UGV를 구매해왔다. FLIR시스템즈에 따르면 지난해 미 국방부는 UGV 850대를 구매하기 위해 9700만 달러를 썼다.

센토 UGV 안에는 다양한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다. 이를 통해 주변 광도가 낮거나 야간인 경우 300m 거리 내에 있는 표적을 식별할 수 있고, 주간에는 600m 거리 내에 있는 인원을 식별할 수 있다. FLIR 톱 프로스트 부사장은 “소프트웨어 최신화를 통해 개선된 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”고 설명한 뒤 “폭발물 처리부대와 기술을 공유해 합동부대의 작전·훈련·지속유지 활동을 높일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2018년 공개된 센토 UGV는 육군의 로봇



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센토 무인지상차량(UGV). 출처=janes.com

체계 인크러먼트-2 사업용으로 설계됐다. 이 UGV는 운용자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위험물질을 탐지·식별·처리할 수 있다. 무게는 74kg이며 최고 속도는 6.5km/h다. 또 30° 경사를 등판할 수 있고, 43° 기울기

의 계단을 오를 수 있으며 정해진 반경 안에서 회전할 수 있다. 센토 UGV는 표준 군용 배터리를 이용할 경우 한 번에 8시간 운용할 수 있다. 또 다양한 센서 어레이를 장착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.

네덜란드 CV-90 보병전투장갑차 성능개량 추진

정비능력 증대...스파이크 미사일 통합

네덜란드 국방부는 최근 CV-90 보병전투장갑차(IFV) 122대에 대한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. 네덜란드 국방부는 이번 수명주기 과정에서 성능개량(MLU) 사업을 통해 방호력, 기동성, 관측 및 지휘능력과 정비능력을 증대해 2039년 운용수명이 끝날 때까지 작전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사업에는 스파이크(Spike) 미사일 통합작업이 포함돼 있다. 이미 네덜란드군은 CV-90을 이용, 스파이크 미사일을 발사하는 실험을 진행하며 통합작업을 준비해왔다.

네덜란드는 스파이크 미사일 통합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 도입하는 CV-90 장갑차 90대에 능동방호체계를 장착하기로 했다. 스파이크 미사일은 능동방호체계의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. 이 장갑차들에는 또 포수·조종용 열상체계와 IT 기반 시설, 통합전투관리체계도 장착될 예정이다. 네덜란드 국방부는 “능동방호체계를 갖춘 CV-90 장갑차는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작전을 수행하게 될 것”이라고 소개했다.

네덜란드는 예산을 고려, CV-90 장갑차의 성능개량 물량을 141대에서 112대로 줄



네덜란드 군이 운용하고 있는 CV-90 보병전투장갑차. 출처=janes.com

였다. 조종수 훈련용 차량 숫자도 8대에서 6대로 축소했다. 네덜란드 국방부는 올해 1분기 안에 BAE시스템즈와 성능개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. BAE시스템즈는 2024~2026년 성능이 개량된 CV-90을 납품하겠다는 계획이다. 러시아 기갑부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 전방주둔전투단에 참여하고 있는 네덜란드는 정기적으로 CV-90을 파견하고 있다. 현지 언론은 CV-90에 스파이크 미사일을 장착하면 독일의 푸마(Puma), 리투아니아의 복서(Boxer) 장갑차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. 자료 제공=글로벌디펜스 뉴스